

'사람과 법' 법률사무소 불자 변호사 3인방

'붓다의 법'과 '세간의 법', 두 개의 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종합법률사무소 '사람과 법'의 불자 변호사 3인방이 바로 그들. 지난 1일 변호사 이름들로 빼곡한 서초동 법조 단지에서 이들을 만났다.



◇이홍주



◇조영봉



◇박태원

“佛法으로 세간법에 향기 심어요”

●몽친 이유=법 앞에 '사람'을 세우고 싶었다. 사람부터 알고 싶었다. 사법 시험 공부할 때도, 불교화사회·정년회 활동 시절에도, 사람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절박했다.

지오. 하지만 마음에서 물어나는 불자님들의 넉넉함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법률지식만을 가진 차가운 사람으로 남기보다는 가슴 따뜻한 불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알아야 법을 공부할 수 있다"는 우리들의 믿음과 서로의 필필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의기투합하고 지난해 2월에 '사람과 법' 사무실을 열었습

사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불자법조인의 길=우리는 이렇게 걸어간다.

"절묘한 줄타기였습니다. 갈등도 많았습니다. 세간법 속에서 붓다의 연기법은 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불자인 피의자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자비심만으로 해결

변호사는 아예 사경집을 들고 다닌다. 틈만 나면 한자 한자 새기면서 흠어진 마음을 다잡는다. 조 변호사의 신행은 소박하다. 출·퇴근길에 만나는 길인들에게 보시금을 건네준다. 박 변호사는 '법전 대신 경전을 끼고 다녔다'는 다르마 법우회 지도교수 조희대 서울지법 부장판사의 정신을 되새긴다.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냈다. 불자법조인의 길은 붓다의 법과 세간 법을 최대한 조화시키는 삶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한 한 가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불자들의 권리의식을 높이는 것도 젊은 불자법조인이 가야할 길이라고



◇'젊은 불자변호사들의 파이팅'. 종합법률사무소 '사람과 법'의 3인방이홍주(왼쪽), 조영봉(가운데), 박태원 변호사가 힘찬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됐죠." 이홍주 변호사는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헤맨 '길'을 이때 비로소 보았다고 했다. 곧이어 조영봉 변호사도, 박태원 변호사도 말을 거

니다." 사무실 이름에는 이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사람이 법으로부터 제대로 대접 받는 세상, 사람을 위해 법이 봉

사법연수원 제31기 다르마법우회 동문 무료 법률상담, 5월 법우회 동문회 창립 "불자들 권리의식 높이기 우리가 해야 할 일"

필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조영봉 변호사가 그간의 갈등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대답은 갖고 있었다.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없지만, 부처님 법에서 번뇌를 여의고,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다른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때문에 신행은 더욱 간절해졌다. 또 자기반성의 시간도 길어졌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이들은 매일 <금강경> 사경과 다라니를 외다. 이

덧붙였다.

'사람과 법'의 변호사들은 오는 5월에 사법연수원 다르마법우회 동문회 결성을 추진한다. 기수별 모임의 한계를 벗고, 현장에서 뛰고,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다른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일단 연수원 30·31·32기를 중심으로 동문회를 구성해 조계사를 비롯한 불교계 시설을 방문, 무료법률 상담 봉사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02)591-6600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대덕연구단지 불자연합회

늦은 밤, 연구실에서 바라본 별빛은 아름답습니다. 계속되는 실험들로 몸은 고되지만, 가슴 한 편에 저미는 부처님 법은 언제나 감로수로 다가왔습니다. 모니터에 붙여놓은 법구 한 자만으로도 지친 심심은 어느새 새로운 활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대덕연구단지 불자연합회는 지난 1987년에 창립했습니다.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기관의 불자회가 모인 연합단체로,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력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삼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등 총 9개 지회로 회원만 4백여 명 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 자랑을 하겠습니까. 뭐니뭐니 해도 회원들의 불

장도 마련됐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해 1월, 10월 대전 태전사에서 우리 연합회가 마련한 두 차례의 산사음악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단했지요.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의 법패, 바라춤 등의 불교음악 공연은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산사음악회를 연간 행사로 정례화해 지역 문화제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짝꿍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회원이 자기의 연구프로젝트 진행에 쫓기다 보면, 법회를 자주 봉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상도 없이 밤늦게 일하는 것이 연구소의 특징이다 보니, 10년 이상의 친구이면서 경조사에도 서로 연락을 못하는 일이 많았지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경조사

회원 교육과정 '입문-참선'으로 확대개편

지회별 경전연구회... 전문분야별로 활동



◇지난해 10월 대전 태전사에서 대덕연구단지 불자연합회가 마련한 '제2회 마음을 여는 산사음악회'. 이날 초청된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이 영상희상기를 연주하고 있다.

교입문교육 과정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도법사 도입 스님(대전사 주지)의 지도로 2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또 2월에 배출된 첫 수료자 30명을 대상으로 참선 전문교육 과정에도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확대 개편해, 명실공히 '순환교육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뿐만이요? 산하 9개 지회를 순회하는 합동법회도 봉행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창립 이후, 줄곧 제기됐던 지회별 지도법사와 회원 부족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다소 해소되는 것은 물론, 지회별 정보공유의

모임이었습니. 연구와 공부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경조사에는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연합회는 지회별 경전연구회 결성을 추진합니다. 4백여 명의 회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박사급 연구원인 점을 고려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회원들의 연구 분야와 연계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대덕연구단지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조성된 연구단지인 만큼 연합회 활동이 회원들의 연구 성과와 신행활동에도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김천석 회장(KT&G 중앙연구원)

우리 모임에선

금천구청 공무원 불자회 창립법회

서울시 금천구청 공무원 불자회가 지난 3월 28일 금천구불교회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지도법사 원옥 스님, 한인수 금천구청장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창립법회에서 한경현 초대회장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공무원 불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경찰불교회 합동법회

전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경·경찰청 수사국장)는 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서울 지역 경찰불교회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서울 지역 경찰불교회원 및 가족 100여명이 참석했다.

운불련 5대 회장 이길풍 씨

대구 동화사서 정기총회·대의원 수련회

한국운전기사불자회(이하 운불련) 제5대 회장에 운불련 대전지회 이길풍 회장(사진)이 선출됐다. 운불련은 지난 3월 30일 대구 동화사에서 '제9차 정기총회 및 대의원수련대회'를 갖고, 당초 제1차 운영위에서 추천한 부산지회 조흥인 회장의 불신임을 결의했다. 곧이어 운불련은 제2차 운영위를 열고 대전지회 이길풍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회장선출 과정에서 나선된 부산지회장을 비롯해 안양, 수원지회 등 10여명의 대의원이 지금까지 운불련 운영에서 회수가 적은 소수지회가 소외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소요가 있었다.



대구 동화사= 박원구 기자

고요이점 전화: (02) 322-0036 팩스: (02) 322-3674 홈페이지: www.coachim.co.kr 도매인원화(주)한국출판유통 전화: (031) 945-2900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편안하다

동자승 이야기

어린그늘

KBS 인간극장 5부작 MBC 아주특별한 아침 방영!

산사의 샘물처럼 맑은 동승의 얼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마음의 때가 벗겨지는 천진난만한 얼굴, 찢든 세상의 마음을 훌훌 다 털어 내주는 작은 스님들의 부처 같은 얼굴, 꽃 보다 아름다운 작은 스님들의 산사이야기. 사람은 환생할 수 있을까. 돌아가신 성철 큰스님과 성철동자의 아름다운 인연. 그 동자가 살고 있는 백화도랑 '해인사' 일곱 동자와 무학스님의 살아가는 이야기

❖ 이 책을 사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선재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지엄·정성욱 글 윤길라! 값 9,900원

무심 경허 큰스님의 유일한 법어집

비바람 눈보라치는 땃길 산, 북천 잡어도 할지 결심도 없이 문득 구경 구경이다. 경허 스님의 글은 권법어요 지이다. — 용암일보 경허 큰스님 저술 1백여 개월간 (10.5.50)

마음꽃 경허 큰스님이 던져주는 마음의 화두

'마음꽃'은 모두 사랑함이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 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 — 조선일보 (종합) 10.11.26

펼치기 성철, 만해, 경봉, 효봉 스님이 나눈 편지

'편지'는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이국 근대 불교사에 종언이다. — 용암일보 권희, 만해, 경봉, 효봉 스님 저술 10.5.50